주 제 발 표 III

농촌문화체험 자원개발 상품화
(충남농촌문화체험 중심으로)

최선희(충남농업기술원)

1. 들어가는 말

농업 농촌은 인구유출로 인한 과소화, 농산물 가격 불안정, 농산물 국제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WTO 뉴라운드 농업협상 등 국제 농산물 시장 개방이 가속화 되면서 수입농산물이 증가하여 결국 국내 농업기반이 붕괴되고 있다. 농업기반이 무너지면서 농가 인구는 감소하여 농촌은 노령화로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또한 난개발로 농촌경관이 훼손되고 있으며 도시지역에 비해 생활여건과 복지 인프라도 취약한 실정이다.

한편 대도시에는 인구와 경제 활동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하다. 도시민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가고 생활은 편리해졌으나 삶의 질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농촌관광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농촌과 도시생활의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5일 근무제등 본격적인 여가 시대를 맞이하여 농촌이 새로운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

2. 농촌문화체험이란

도시민들은 농촌다움이 보존된 농촌에 머물면서 그곳의 생활을 체험하고 여가를 즐기고 싶어 한다. 도시민이 농촌을 찾는 이유는 도시의 다른 관광지와 다른 무엇 즉 농촌의 경관이 주는 쾌적성과 아름다움, 농업을 체험함으로써 얻는 즐거움과 고상함, 농촌에 묵으면서 느끼는 안락함 등이다.

농촌문화체험은 농촌지역의 자원을 바탕으로 하게 되는데 그 자원은 다름 아닌 농촌지역의 환경 생태 역사 문화 등이다 즉 농업·농촌환경 및 농사체험, 세시풍속, 절기문화 등을 상품화하는 것이다. 즉, 지역 특색에 맞는 농촌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시민에게는 농촌, 농업 문화체험 및 휴식의 공간으로 제공하고, 농업인은 농산물 및 농산 가공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이런 체험은 각각의 프로그램으로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여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농촌문화체험은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자극하고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는 호기심을 제공하고 충족시킨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흙을 밟으며 자연과 가까워질 수 있으며 풍요로운 마음을 키울 수 있다는 점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알게 함으로써 농촌을 이해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농촌의 미래를 위해서도, 어린이들과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3. 농촌문화체험 자원 개발

◇ **농산물수확체험** - 너무나도 신기해요

농산물을 수확하는 기쁨은 그 농산물을 직접 심고 가꾼 농민이 아니더라도 결실을 만끽하며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체험이다. 인기 있는 수확체험은 과일류 수확이다. 딸기 및 방울토마토 따기, 참외, 사과, 배 수확, 밤 줍기 등은 수확한 농산물을 그 자리에서 먹어 볼 수도 있어 더욱 인기가 있다. 감자와 고구마 캐기, 고추를 따거나 마늘 및 생강을 수확하는 일도 수확체험으로 인기가 높은 편이다. 농경사회의 전통문화 체

험을 곁들인 손모내기나 벼 베기 체험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 **농산물재배체험** - 어려워도 할 수 있어요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많다. 하지만 땀의 의미를 찾겠다고 힘든 일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 농업인을 더 많이 이해 할 수도 있다. 농산물 재배 중 체험으로 적당한 것은 모내기, 김매기, 과일의 적화나 적과, 고추, 고구마 등의 이식이나 정식, 꽃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분갈이도 하고, 분경이나 분재를 만드는 것도 꽤 좋은 체험이 된다.

◇ **농산물가공체험** - 맛있는 냄새가 나요

농산물을 수확하는 기쁨도 크지만 그 수확한 농산물로 신선한 가공품을 만들어 보는 일도 신기하고 맛있는 체험이다. 가장 대표적인 체험으로 딸기잼 만들기 체험이 있으며 두부 만들기 체험도 인기가 있다. 딸기잼 체험의 경우 직접 딸기를 수확하고, 수확한 딸기를 정성껏 다듬은 후 바로 잼 만들기 체험으로 연결하여 체험에 참여한 사람들이 만든 잼에 큰 애착을 나타낸다. 두부 만들기는 콩 수확과 바로 연계하여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갓 만들은 따뜻한 두부를 맛볼 수 있어 인기가 좋다. 또한 도시주거형태상 만들기 어려운 된장 고추장등장 담그기도 주부들에게는 인기있는 체험이다.

◇ **농촌생태체험** - 정말 재미있어요

도시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에게 농촌의 모든 것들은 신기하고 흥미롭다. 교과서에서 보았던 반딧불이를 관찰한다거나 방아개비를 잡아보고 들과 산에 피어있는 야생화의 생김새를 관찰하고 이름을 알아보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학습의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

◇ **천연염색체험** - 내가 만들어 더 이뻐요

봄에 많이 피는 애기똥풀, 쑥, 쪽풀, 치자, 감, 밤, 그리고 황토 등 천연염색은 지역에서 쉽게 구할수 있는 천연의 재료를 사용하여 신비하고 고운 빛깔을 체험 할수 있는 것으로 천연염색 제품이 워낙 비싼 값으로 팔리고 있는 실정이어서 체험을 통해 직접 만든 스카프나 손수건 등에 큰 애착을 보인다.

◇ **짚풀공예체험** - 정말 근사해요

농산물 수확후 부산물인 짚과 밀짚은 예전에는 난방의 원료나, 가축의 먹이로 또는 새끼줄이나 짚신의 재료로 사용되었고, 멍석을 만들거나 생활에 필요한 소품들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밀짚으로 만드는 여치집은 농산 부산물을 이용한 조상의 지혜를 느낄 수 있고, 여치집에 여치를 넣어보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는 체험이다. 어른들이 하기에 적당한 달 갈꾸러미는 아련한 기억 속에 떠오르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기도 한다.

◇ **세시풍속체험** - 볏가리대를 세워 한해 소원과 희망을 기원해요

볏가리대 세우기는 한해 농사의 풍년과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농경문화의 세시풍속으로, 마을 뒷산의 가서 소나무를 잘라 와서 짚으로 동아줄을 만들어 세우고 창호지로 오곡을 각각 한 주먹씩 싸서 볏가리대 위에 달아매어 볏가릿대를 세워 한해 소원과 희망을 기원 한다. 이외에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연날리기, 줄다리기, 밥 훔쳐먹기 등 어른들에게는 어린시절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아이들에게는 말로만 듣던 농촌의 생활과 정월 대보름의 세시풍속을 경험할 수가 있다

◇ **꽃음식체험** - 자연을 먹어요

충남도에서는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시 아름다운꽃음식전시회를 통하여 우리문헌 속에 기록되어 있는 꽃을 이용한 다양한 꽃음식이 많이 발굴 되고 개발 되었다. 이 전시회를 계기로 꽃음식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상품화 되어 상업적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계절별로 주위에서 싶게 구할수 있는 식용꽃을 이용하여 봄에는 진달래화전, 송화다식, 꽃비빔밥 여름에는 호박꽃찜, 맨드라미꽃떡 가을에는 국화전, 국화차 겨울에는 동백인절미, 꽃떡케익 등 꽃음식을 만들어보는 체험 또한 도시소비자들에 큰 매력을 얻고 있다.

<충남농촌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시군	계	당일	2일이상	주 요 내 용
천안	4	4		포도, 고구마, 표고수확 체험 등
공주	5	5		판소리배우기, 알밤줍기와 백제문화탐방 등
보령	7	7		양송이, 무화과 체험, 전통메주 손두부체험 등
아산	11	8	3	다라미 장 담그기, 옥수수하모니카불기등
서산	9	6	3	참샘골호박농장, 생강캐기 체험 한과만들기 등
논산	5	5		딸기따기 및 잼가공체험, 밤고구마 수확 등
금산	6	5	1	깻잎따기 체험, 인삼캐기, 인삼요리체험 등
연기	5	4	1	농촌생활체험, 복숭아수확 등
부여	5	4	1	시골장, 곤충 및 야생조류관찰 등
서천	8	7	1	갈대女와 철새男, 한산모시 체험 등
청양	20	11	9	고추 구기자체험 화전만들기, 천연염색 체험 등
홍성	5	4	1	보리고추장 체험, 친환경농업체험 등
예산	2	1	1	사과수확 체험, 맑은 별 마을 체험등
태안	7	6	1	생강수확체험, 볏가릿대세우기 염전체험 등
당진	4	4		바다약초 체험, 짚풀공예와 황토염색 등
계	103개	81	22	

4. 농촌문화체험 운영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여행은 대개 가족단위의 여행이거나 여행사 패키지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시기적으로는 여름휴가철이 여행의 최성수기이며 봄의 봄꽃여행과 가을의 단풍여행도 그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 요즘에는 국내테마여행의 일환으로 이색적인 체험여행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여행사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현대인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고객만족 차원에서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대인의 여행욕구가 단순히 보는 관광에서 탈피하여 무엇인가 보고 느끼고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도시인들은 찾고 있다는 것이다.

◇ 체험 참여자에 따른 준비

농촌문화체험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체험여행이 어느 층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정해져야 한다. 가족대상의 여행인지, 특정 연령층이 정해져 있는 여행인지에 따라 프로그램이 달라야 한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경우와 중·고등학생에게 특성에 맞는 다른 내용의 프로그램이 계획되어야 한다.

대상이 정해지면 각 대상에 맞는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꾸미는 것이 중요하다. 마을이나 농장에 도착했을 때 참여자를 맞이하고 체험내용을 설명하고, 진행할 세부적인 내용이 미리 계획되어야 한다. 세부계획 수립에는 참여자 특성을 배려해야 한다. 가족여행으로 농촌체험여행에 참여토록 하였다면 가족간에 오붓한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자연학습에 참여한 어린이들에게는 성인에 비해 집중력과 힘이 떨어진다는 것을 미리 생각해 어린이가 체험 가능한 내용만을 계획에 넣어야 한다. 설명 자료를 만들 때도 유치원과 초등학생이 대상이라면 농산물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농산물을 가꾸는지 대략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중·고등학생이 주된 참여자라면 초등학생보다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의 자료를 준비하고 설명해야 한다.

◇ 농촌문화체험 진행

▶ 사전계획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개월전에는 그 내용이 정해져야 한다. 마을단위로 추진하는 경우라면 마을의 충분한 협의로 준비되어야 하고, 개인 농장의 체험이라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특히 농산물 수확을 체험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험을 제공하려고 계획하는 때가 적절한 수확 적기가 될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수확적기로 판단되면 체험 제공의 규모를 정해야 한다.

몇 명까지 접근이 가능한지, 체험진행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미리 계획해 두어야 한다.

▶ 체험 참여자 모집

체험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네트웍을 이용해야 한다. 생협, 봉사단체, 친목회, 여가활동을 권장하는 민간기업,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학교, 출향인사, 동호인, 팬클럽 등과 연계하거나, 신문, 잡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활동,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와 연계하여 체험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방법도 있다.

충남도농업기술원에서는 농촌체험전문 여행사와 농촌문화체험을 추진하는 농가 및 마을대표 그리고 시군농업기술센터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시군에서 개발된 농촌문화체험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농촌문화체험프로그램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박람회를 통하여 도기술원에서는 농촌문화체험을 총괄 기획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참여농가와 마을의 진행을 지원하고, 여행사는 이 박람회를 통하여 소개된 프로그램을 체험대상에 따라, 시기에 따라 확정하여 도시민에게 상품홍보 및 모객을 하고, 농가 및 마을대표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역할분담을 통하여 효율적인 농촌문화체험을 추진하고 있다.

▶ 체험 추진 확정

체험 날자가 정해지고, 체험 참여자를 모집하면 일주일 전에는 최종적인 체험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이때부터는 세부적인 진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승용차나 버스 등 참여자의 주차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체험 참여자에게 설명할 리플릿등 자료도 준비해 둔다. 식사 제공의 경우라면 식단을 짜 두어서 준비해야 한다.

▶ 체험 추진

○ 인사 및 소개

체험 참여자가 도착하면 반갑게 맞이한다. 농촌사람들은 다들 무뚝뚝하다는 인상을 주면 곤란하다. 멀리서 자녀들이 온 것처럼, 모처럼 손자들이 온 것처럼 맞이해야 한다. 체험 참여자들이 차에서 내려 정리가 되면 진행을 추진하는 사람의 소개를 하고 마을이나, 농장에 대한 소개도 함께 한다. 화장실과 손을 씻을 수도 둥도 본격적인 체험 진행에 앞서 미리 안내한다.

○ 체험에 대한 설명

체험장으로 이동해서는 체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체험 진행방법과 체험시간을 알려 준다. 체험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도 미리 챙겨야 하며, 도구를 사용하는 체험의 경우 안전사고를 위해 어떤 주의가 필요한지 상세히 설명한다. 마을단위로 참여한 프로그램이라면 조별로 나눠 안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농장에서 농작물에 대해 조심할 점도 미리 말해두며 어린이들만 참여하는 체험에는 인솔자에게,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부모들에게 어린이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미리 알려준다.

○ 체험추진

체험 진행 중에는 체험자들 가까이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안전사고의 우려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고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성의 있게 대처해야 한다. 너무 많은 사람이 참여했고 위험한 도구를 사용한다면 조별로 체험을 하도록 하거나, 다른 협조자를 구해 체험 진행을 지켜보도록 한다.

○ 체험의 마무리

체험 진행 시간이 끝나면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고, 다음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도록 안내한다. 안전사고는 없었는지 확인하며 불편하거나 어려운점은 없었는지 파악해 둔다. 체험에 참여한 사람들이 체험장을 떠나면 체험 프로그램이 모두 마무리 된다. 참여자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환송해준다.

▶ 사후고객관리

체험장을 방문한 사람들과 피드백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여행사 패키지를 이용해 참여한 사람들은 여행사 홈페이지에 체험여행에서 좋았던 점과 불편했던 점을 올린다. 불편사항에 대해서 체험을 제공한 농장에서 직접 글을 올린다면 참여자들은 다음 체험에도 재 방문하게 된다.

방명록을 비치하여 참여자의 주소나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록하여 다음에 추진하는 체험프로그램에도 안내문을 보내 다시 참여토록 유도 할 수 있다. 체험 중에 농산물을 구입해 간 참여자

가 다시 농산물을 구입하기 원한다면 직접 방문하였을 판매하였던 것과 똑 같은 품질의 농산물을 보내주는 것이 필요하다. 재 신청할 정도라면 보내주는 농산물의 품질이 균일한 경우 농산물 구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단순히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나 농가의 홍보, 농산물 판매와 지속적인 교류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농촌문화체험 상품화 사례

<금산군(인삼체험과 꽃음식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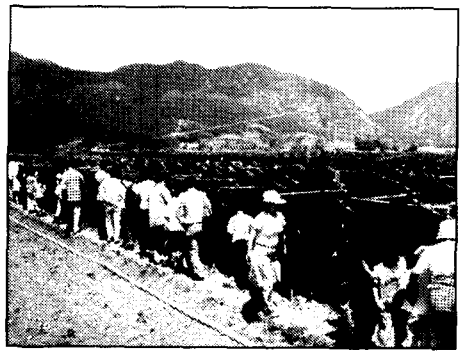
행 사 개 요

◆ 행사일시 : 5/19(당일, 08:00am 출발)
◆ 참가비용 : 만원(잔액은 011리더스클럽 지원)
◆ 체험내용 : 인삼주병 만들기, 꽃음식 만들기
◆ 견학장소 : 태영박물관
◆ 출발장소 : SK 남산빌딩 앞
◆ 주　　관 : 011리더스클럽

▶ 체험일정

08:00 ~ 10:45 서울출발, 인삼전시관 도착
10:45 ~ 12:15 인삼깍기, 인삼주병 만들기 체험
12:15 ~ 12:30 개삼터관광농원 도착
12:30 ~ 13:45 점심식사
13:45 ~ 14:15 인삼밭 둘러보기
14:15 ~ 14:30 태영민속박물관으로 이동
14:30 ~ 16:30 꽃음식 만들기 체험
16:30 ~ 19:30 서울로 이동

▶ 체험 참가 사진



▶ 체험 후기

"인삼의 향기를 받으세요"

- 한영희 -

그렇다. 아직도 인삼의 향기가 그대로 묻어있는 듯하다. 나의 마음, 우리 가족들의 마음, 카메라 속에 아직도 인삼의 향기가 그대로 베어있어, 아직도 금산에서 꿈을 꾸는 듯 나의 마음은 아직도 그곳에 머무르고 있네...

늘 한약의 향이 좋아 한번 향에 취하면 계속해서 맡고 또 맡고 하는데 이번 체험여행에 금산이란 점에 더욱 더 매료되어 열심히 공부하는 신랑을 꼬셔, 우리도 한번 봄의 향기를 안으러 가자고 하여 아들 둘과 신랑과 함께 여행길에 올랐다.

사실 10,000원으로 금산까지 갔다 온다는 것에 거의 기대도 안했지만 우선 011리더스 클럽이라는 것에 믿음을 안고, 편안한 마음으로 차에 올랐다.

그러나 나의 우려는 차에 오르는 순간부터 사라지고 우선 가이드님의 친절함, 011에서의 세심한 배려에 정말 "아! 이게 바로 고객 서비스"야라는 생각을 잠깐 동안 스치듯이 지나가고 드디어 금산에 도착,

인삼 전시관 도착!

초등학교 1학년의 숙제도 될 겸 가족사진도 찍고, 여태 몰랐던 인삼의 꽃이 빨갛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은 나의 무지함에 놀라 전시관에 있는 자료들을 읽어내리느라 정신이 없었고, 이어지는 인삼깍기 체험에 들어갔는데 늘 평상시 아이들과 여행을 가면 한번쯤 이런 체험을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닿지 않아 한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는 체험을 하고,

점심시간!

사실 처음 먹어보는 금산어죽! 약간은 매워서 아이들 은 먹지를 못했지만 그래도 나는 맛있게 먹었고, 특히 푸짐하게 나온 튀김, 또 도리뱅뱅이이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요리는 정말 맛있게 먹었다.

인삼 밭!

잠깐이었지만 아이에게 인삼 밭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실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경험이 되었고, 또 다음날인 오늘 학교에서 그리 기대회가 있었는데 금산의 인삼 밭에 다녀 온 것을 그리게 되어 정말 흐뭇한 기억이 될 것 같다.

태영 박물관 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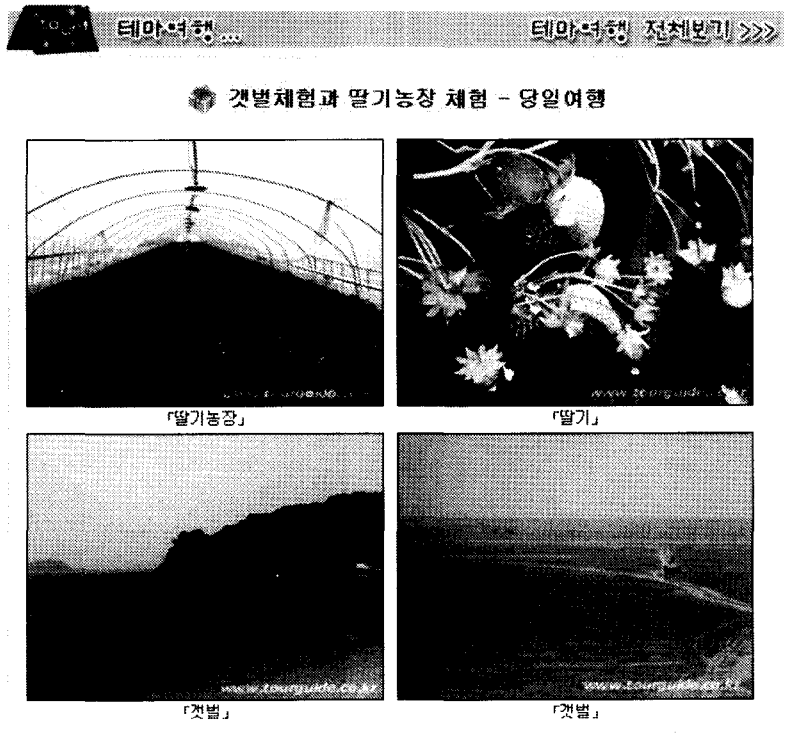
평상시 늘 가보고 싶던 곳. 화사한 꽃망울을 터뜨린 곳으로 초롱초롱 빛을 내는 호기심어린 아이들의 눈망울들이 보면 너무나도 이쁜 곳이라 할 수 있다. 늘 아이들에게 내가 보지 못한 보다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나의 소망이 한 발짝 발을 뛰는 순간이 된것 같다.

그야말로 자연의 것을 그대로 옮겨와 가슴에 안겨주는 느낌이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곳에 음악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을 하였다.

마직막 코스로 인삼시장에서 인삼의 향기를 나의 가방에 가득 남아서 집으로 오는 버스에 올랐다. 늘 여행을 떠나면 가족사진을 빼고 세 식구만 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온 것에 늘 안타까웠는데 이번 체험여행에서 박정연 가이드님의 친절한 배려로 가족사진을 한 아름 찍어서 온 올해의 가장 큰 수확과 아직도 우리 집안에 맴도는 인삼의 향기를 맡으면서 금산에서의 기억을 잊지 못하리.... 영원히..

< 서천군(딸기수확과 들밥 그리고 갯벌) >



행 사 개 요

◆ 행사일시 : 5/5, 5/19, 5/26 (각각당일, 06:50am 출발)
◆ 참가비용 : 어른 38,000원 / 어린이 35,000원
◆ 포함내용 : 교통비, 점심식사, 자료집, 체험비, 여행자 보험 등
◆ 정　　원 : 40명
◆ 출발장소 : 교대역 9번 출구
◆ 주　　관 : 투어가이드

여행지 일정보기 ...

곳별체험과 딸기농장 체험 (당일)			
여행일정	일자	세부일정	
	일요일	06:50	교대역 9번 출구 외환은행 앞 집결
		07:00~10:00	서울 출발, 서천 곳벌 도착
		10:00~12:30	곳벌 체험
		12:30~13:00	음식점으로 이동
		13:00~14:00	점심식사
		14:00~14:30	딸기농장으로 이동
		14:30~16:00	딸기농장에서 딸기따기
		16:00~20:00	딸기농장 출발, 서울 도착
출발일자	5월 5일(일), 19일(일), 26일(일)		
출발장소	교대역 9번 출구 외환은행 앞 오전 6시 50분 집결		
상품가격	어른 38,000원 / 어린이35,000원		
포함내역	왕복교통비, 점심식사, 체험비, 자료집, 진행비, 여행자보험 등		
정원	40명 또는 80명		
준비물	편한 옷차림과 여벌의 옷과 양말, 카메라, 장화, 모자, 개인 간식 등		
파란종선 할인가격	35,000원		
비 고	➤ 행사 일정은 현지 사정상 다소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 환불규정		

▶ 체험 사진

딸기따기

들밥도 정말 맛있어요

▶ 체험 후기

딸기 농장과 서천갯벌을 다녀와서...

- 김미애 -

아직도 몸이 뻐근하니 피로하긴 하지만 그래도 넘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아이와 움직이기 쉽지 않아서 가까운 놀이공원만 자주 다녔었는데 그때마다 사람에 치이고 기다리는 시간에 지치고..... 별로 기억해 두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아이는 나름대로 좋은 기억이 되겠지만....

그래서 선택한 이번 여행은 정말로 탁월한 선택이었다는걸 새삼스레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딸기 농장에 도착해서 싱그럽고 탐스런 새빨간 딸기를 보면서 탄성을 질렀고 더군다나 저공해 딸기라는 점에서 더더욱 맘놓고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신나서 자신의 주먹만한 딸기를 따느라 정신이 없고...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아이들이 헤집고 다닌 딸기밭이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닐진데 주인아저씨의 훈훈하고 순수한 인심에 다시 한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농부님들이 힘들게 농사를 짓고 논둑길에서 새참을 먹듯 우리도 그렇게 길가에서 먹는 점심은 진짜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정성스레 지은 밥과 맛갈스런 반찬들.. 그리고 아이가 진짜로 좋아했던 된장찌개 까지...

일상에 경험해 보지 못한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서천갯벌에 다다라서

서서히 물이 빠져나가는 거대한 갯벌을 보면서 천연의 자원이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개발의 바람에 밀려 그런 자연속의 갯벌을 보기란 앞으론 어려울 거라는 얘길 듣고 아쉬움과 문명의 이기에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엉성한 갈퀴짓에 살아있는 조개가 하나 나올 때마다 아이는 탄성을 질러댔고

그런 아이의 해맑은 미소를 보면서 너무도 멋진 이 시간들을 아이의 기억 속에 깊이 자리잡아 감성이 넘치고 여유로움을 알고 자연에 감사하는 그런 깨끗한 아이로 자라주길 기도했습니다.

TV에서나 잠시 볼 수 있었던 그런 멋진 풍경을 만들어 내면서 자연과 함께 너무도 멋진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갯벌이 우리에게 준 선물을 한 아름 가지고 또 딸기 농장에서 맘껏 따서 가져온 싱싱한 딸기를 조심스레 담아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과 장소를 제공해 주신 많은 분께 감사를 드리며 처음부터 끝까지 친철

과 아름다운 미소로 안내해 주신 이윤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행사 때에도 꼭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 청양군 (사슴농장, 고추농장과 황토염색) >

청양 늘푸른마을	충남 청양
늘푸른마을엔 항상 푸르름이 가득합니다...	1박2일

출 발 일	2002/10/19 (토)				
출발장소	2호선 잠실역 3번출구 롯데월드 너구리동상앞				
출발시간	15:00				
비회원가	72000원	회 원 가	49000원 [회원가입]	어린이가	44000원

이 여행에 참가하시면.....

저수지에서 직접 물을 대온 자연과 어울어진 수영장, 늘푸른마을의 수호신인 400년 된 산나무, 따뜻한 우리네 농민의 마음이 있습니다.

고추와 구기자의 마을 청양에서 함께 어우러져 농촌의 옛 정취를 느껴보지 않으시렵니까?

◆ 포함내역

1. 왕복교통비(전용버스) 2. 식사 3식(바베큐파티 포함) 3. 체험 4. 숙박 5. 레크리에이션 6. 여행자보험 7. 가이드 8. 기타

◆ 준비물: 개인 세면도구, 수영복, 여벌옷(아이들)

◆ 초등학생이하 어린이는 무료에 앉혀 갈 경우 무료입니다.

◆ 신청인원이 20명 이하일 경우는 취소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추억이 듬뿍 담긴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체험후기

청양여행 체험기

일곱 살 딸 한슬이의 여름방학 추억 만들기의 하나로 시작된 청양의 1박2일은 우리 가족에게 꿈과 사랑이 가득 담긴 멋진 여행이었습니다. 연일 내리는 비로 걱정도 했지만 다행히 날씨는 맑고 쾌청했습니다. 떠날 때의 불안함과 나의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 자칫하면 망칠 수 있었던 여행이 처음 만난 훈이네, 희수네, 재민이네, 선영이네, 그리고 우리가족까지 다섯 가족 총18명의 이번 여행은 오붓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시에 잠실에서 출발하여 청양에 7시 조금 넘어 도착하여 사슴농장에 갔는데 전 사슴이 그렇게 큰 동물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말만해요. 그리고 흰사슴도 있어요. 우리는 주로 동물원에서 꽃사슴을 보았는데 "엘크종"이라는 이 사슴은 안장 얹고 광활한 들판을 달리고 싶더라구요.

저녁으로 양도 많고 맛있는 산채비빔밥으로 주린 배를 채우고 숙소에 여장을 푼 뒤 운동장에

모닥불을 피고 고기와 한 잔의 구기자 술로 목을 축이고 하늘의 별과 맑은 공기, 따뜻한 사람들이 함께 한 어울림의 한마당....

일곱시에 일어나 아침 산책길에 가 본 역사 깊은 장곡리의 장곡사는 삼국시대에 지어졌다는데 아직은 사람의 발길이 그리 많지 않아서인지, 꾸밈이 없는 아담한 절로 천년의 세월을 조용히 지켜온 작은 절로 보여주기 위한 절이 아닌 사는 모습 그대로의 자연스러움 때문이지 포근하고 편안함을 느낄수 있었고 어쩌면 그리고 산새가 아름답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예뻐보이던지요.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장곡사의 안내를 맡아주신 김명숙 기자님!!! 이 글을 통해 거듭 감사드립니다. 너무도 상세하고 재미있는 설명에 다시 한번 지인들을 모시고 내려가고 싶습니다. 그때에도 꼭 안내 부탁드립니다. 천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작은 절 "장곡사"는 매사 빨리!! 얼른!! 서둘러라를 외치는 무지한 엄마에게 큰 가르침을 일깨워주었습니다. 많은걸 빨리 이루고자 하는 우리 현대인에게 지금은 역사 속에 묻혀 버린 이름 없는 장인의 순결을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들린 곳은 생쪽을 이용해 만든 염색 실크 스카프. 여느 유명 백화점에서 구입한 어떠한 것보다 정이 가고 예뻐요. 내가 만든 거니까. 풀에서 어쩌면 그런 색깔이 나오는지. 감탄. 그리고 동화처럼 살고 싶다고 이름 지었다는 동화농장 한사장님과 사모님, 4대가 산다는 불독 가족, 태어난 지 보름밖에 안된 새끼 고양이 송아지 푸르른 정원 그리고 순수하고 영혼이 맑은 동화농장 가족들의 정겨운 삶 이야기는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순화시켜 주었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두 분 같은 분이 계시기에 아직은 우리 농촌에 희망이 있습니다.

숨이 차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장승공원을 바라보며 먹었던 보리밥도 맛있었고, 인스턴트 식품에 쌓여 사는 우리에게 산채나물과 된장국, 그리고 보리밥, 구기자 한과는 좋은 먹거리로 지금도 구기자 한과 먹으며 이글을 씁니다. 달지 않으면서도 구수하고 달착지근한게 자꾸 손이가요.

바쁜 일정 속에서 돌이 갓 지낸 영욱이를 안고 시작한 여행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특히 제일 감사한 게 고향을 지키며 사랑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청양군의 아낌없는 지원과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보이지 않는 곳의 많은 분들과 군의 정책에 박수를 보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의 안내를 맡아주신 김미숙계장님. 언제나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저희와 같은 사람들이 농촌을 바르게 알고 느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세요.

왜 사는 걸까? 삶에 지친 분들 떠나세요. 그리고 가득 안고 돌아오세요.

갔다 아니오면 아니돼고 꼭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 보세요.

아직 휴가를 다녀오지 않으셨다면 주말에 가벼운 차림으로 가족과 함께 편안히 다녀오세요.

박춘금 (한슬 영욱엄마) 드림